



박우정 고창군수가 역동적인 군정발전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2017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의 경쟁력 있는 CEO’ 시상식

가치경영부문대상에 박우정 고창군수

박우정 고창군수가 역동적인 군정발전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2017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대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TV조선이 주최하고 조선일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해 25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7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시상식에서 박우정 군수가 가치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는 혁신과 창조적 마인드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 경영 선진화를 이뤄낸 리더들의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는 상이다.

박우정 군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의 뛰어난 자연생태환경을 잘 보전하는 한편, 이를 현명하게 이용하며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 고창 자연마당 조성, 국가생태관광지역 육성 등에 힘썼다. 또한 세계유산 고창고인돌유적과 인류무형유산 판소리과 농악의 진흥과 육성에도 노력하면서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해 멸종상부한 세계유산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 확산과 고부가치 농산물 생산환경 조성을 비롯해 상하수처리 농어촌 테마공원과 웰빙

식품 가공공장 건립 등 농축어업의 생산과 가공, 체험을 아우르는 6차 산업연계에도 역량을 집중해 활력 넘치는 고창발전을 이룬 성과 등을 인정받았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주민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 모두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노력하면서 행복지수가 높은 고창군을 만들겠다"며 "한국인의 분향,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의 뚜렷한 목표 속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고창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옛 남원역사·KBS방송국 부지 매입

이환주 시장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문화거점도시 조성"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시민들의 삶과 애환이 깃든 옛 남원역사와 KBS방송국 부지를 매입해 문화 거점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옛 남원역은 아파트와 상가 등으로 둘러싸인 도심 속에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소로 남원시에서는 2004년 남원역이 이전한 이후 생활쓰레기, 페곤크리트, 잔파복 등으로 방치되었던 부지를 코스모스 단지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향기원으로 탈바꿈시켰고, 현재는 바깥개비, 조형물 등이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옛 남원역은 정유재란 당시 최후의 혈전을 벌인 남원성 복원이 있었던 곳이다. 북문은 1만 민·군·관이 죽음을 각오로 싸워 왜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순국한 역사적 장소이다.

350여년이 지난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정유재란 당시 설국을 보복하기 위해 남원성 복원을 할어내고 그 자리에 남원역을 만들어 순국의 현장과 무덤을 플랫폼으로 차단한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지가 한국철도공사 소유여서 남원읍성(북문·북벽) 복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남원시는 남원역사 부지 매입을 계기로 남원읍성(북문·북벽)을 복원해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시민들이 편히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앙공원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부지 매입은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을 통해 점차적으로 분할상환 할 예정이다. KBS 남원방송국은 1952년 개국한 이래 지리산권 주민들의 삶과 애환을 담아 왔다. 그러나, 2004년 남원방송문화센터로 격하되면서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는 지난해 신청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예산사업 문화재생사업)에 남원방송국이 선전돼 국비 14억원 등 총 사업비 51억원을 들여 아트센터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남원시는 아트센터를 문화도시, 예총,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 시민들의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시립국악단 연습공간으로 제공해 판소리 본고장의 면모를 갖춘다는 복안이다. 남원시는 그동안 도심에 활성화시키기 위해 합파우 유원지 개발, 남원에촌·문화도시 조성, 도시재생사업 등 사업을 연계시켜 추진하여 왔다. 여기에, 남원읍성 복원 및 중앙공원 조성으로 시내권 관광벨트 구축과 도심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환주 시장은 "옛 남원역과 KBS 방송국을 남원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조성해 시민이 행복한 지리산권 문화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기간 설정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정정고장의 우수한 농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준비하세요" 설 명절을 맞아 임실군과 지역 기관·단체는 오는 26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기간'을 설정하고 장보기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25일 심민 군수를 비롯해 주요단체장은 관촌시장과 오수시장을 연이어 방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설 명절 제수 용품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또한 26일 군과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 주관으로 공직자와 기관·단체 직원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시장 5곳을 돌며 장보기 행사와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임실사랑상품권'의 활용을 위해 3%에서 5%로 상향 조정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또한 군청 공직자는 지난 5년 동안 매월 4천여만원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자율적으로 구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또한 군청 공직자는 지난 5년 동안 매월 4천여만원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자율적으로 구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군민과의 소통 행정·의견 반영

황숙주 순창군수 읍면 현장방문 성료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군정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황숙주 군수의 읍면 현장방문이 지난 25일 구립면 방문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현장속에서 군민들과 함께 군정 방향을 모색하고 변화를 이끌고자 실시한 이번 연초 방문은 지난 16일 적성면민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7일동안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2,200여명의 군민들을 생활터전에서 만나 소통의 장이 됐다. 특히 황숙주 군수는 군정성과와 앞으로 순창의 미래발전을 이끌 주요사업에 대해 직접 PPT자료를 활용해 자세하게 설명해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 동의를 구해 행정과 주민이 소통을 통해 군정발전을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이다.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서도 정해진 격식 없이 대화를 진행해 어느해 보다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진 현장방문이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실제 7일간의 읍면 방문에서는 총 80여건의 주민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작게는 면 개발사업 건의에서부터 크게는 군정 발전을 위해 이런 사업들을 해줬으면 한다는 비전제시까지 다양한 군민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 각면에서는 마을 진입로 확장과 체육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 직결되는 건의 사항부터 인계특화작목인 쌀재소를 활용한 쌀재소 체험센터 설치 도시민 유치, 논외의 밭작물 전할 기반 조성, 금과친환경 철바다지 운영방법 개선 등 정책활용 주민의견도 많이 제시돼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황숙주 군수는 "그 첫 번째 여정을 군민들과의 소통하는 자리로 시작해 더욱 기쁘다며 현장방문시 제시해준 군민들의 의견은 꼭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동계 훈련지로 '각광'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동계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현재 육상 4개 팀을 비롯해 야구, 유도, 축구, 배드민턴 등 27개팀 500여명의 선수가 이달 초부터 고창을 찾아 동계훈련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주 리틀야구단은 이달 초부터 지난 24일까지 생활야구경기장에서, 서울골프초, 서울아현초 등 배드민턴 선수단은 오는 26일까지 군립체육관에서 군장대, 백제고 등 축구선수단은 생활축구경기장에서 훈련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처럼 고창군이 동계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청정한 자연생태환경, 잘 갖춰진 체육시설, 맛 좋고 풍부한 먹거리 등 전지훈련에 필요한 여건이

잘 갖춰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고창군과 체육회, 종목별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준공된 생활야구경기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갖춰져 올해부터는 더 많은 전지훈련팀이 고창을 찾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전지훈련으로 고창군을 찾는 팀들이 최적의 여건을 갖춘 시설물을 잘 활용해 훈련 성과를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며, "군에서도 관내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숙박업소와 음식점 위생지도 등을 통해 훈련팀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AI 방역 수칙 홍보 나서

남원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기간을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최대로 대비로 판단하여 축산농가 및 귀성객을 대상으로 AI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에서는 사전에 현수막 10개소, LED 전광판 5개소에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휴기간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현재와 같이 24시간 운영하며 매일 축산농가에 SMS 발송과 마을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에서는 귀성객 등 의

부인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1월 1회 소독실시 및 25일과 2월 1일은 전국일제소독의 날로 모든 소독장비를 총 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귀성객들은 축산농가 방문을 금지하고, 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출입 전후 관내 5개 소독장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방문하여야 한다. 특히 AI 발생 지역, 철새도래지 등은 아예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문화도시

고창군, 연휴 문화시설 이용 안내

고창군이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가족·친지들과 함께 지역 내 문화·관광·체육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연휴기간 운영 일정을 안내했다. 선운산도립공원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시설사용료(주차요금)가 무료이며 선운사가 운영하는 문화재관람료는 28일 설날 당일만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고창읍성은 27일부터 30일까지 연휴기간 내내 무료로 입장 가능하며 관소리박물관과 군립미술관, 미당시문화관은 27일과 29일에 무료로 이용가능하고 28일과 30일은 휴관한다. 고인돌박물관은 27일과 29일 무료 입장 가능하며 28일과 30일은 휴관하고 고인돌박물관 탐방열차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미운영하니 참고해야 한다. 고창청소년수련관과 흥덕 청소년문화의 집, 성내 청소년문화의 집, 고창청소년문화센터, 군립·성호·작은 도서관은 27일부터 30일까지 연휴기간 동안 시설 환경 정비 등을 위해 휴관한다. 고창군립체육관과 실내체육관은 27일, 29일, 30일에 운영하며 28일 설날 당일만 휴관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제설작업 방재활동 '호응'

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혹한 속에서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북평갑 단장)의 제설작업 방재활동에 주민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순창지역에는 20일에서 22일까지 순창지역 평균 10cm의 폭설이 내렸다. 이로 인해 도로 교통 불편과 빙판길 사고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율방재단은 총 10회에 걸쳐 읍면 소재지 및 도로변에 쌓인 눈을 치우는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읍면 소재지 주요도로와 시중초등학교·경로당 입구 등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활동이 많은 지역의 눈을 깔끔하게 제거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방재활동에는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 풍산면, 팔덕면, 생지면, 구립면 등 단원 300여명과 단원이 보유한 중장비 11대, 트랙터 2대가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을 사랑하는 단원들 지역자율방재단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재난을 대비한 예방활동과 상황 발생시 응급복구를 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스스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북평갑 단 방재단장은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은 주민의 불편 해소와 재난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집앞, 내집포 눈은 내가 치우기에 다 같이 동참하자"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이웃돕기 성금 기탁

임실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형만)은 백미 20kg 4포(15만원 상당)와 후원금 2백55만원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임실군에 전달했다. '공무원이 중심인 노동조합! 일 할 맛 나는 직장!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슬로건으로 지난 10일 출범한 제계 노동조합은 화환과 화분 대신 받았던 후원금과 백미를 기탁했다. 이형만 위원장은 "정유년 새해 힘찬 출발을 나눔으로 시작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민 군수는 "지속적인 나눔 동참에 감사하다"며 "지역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